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과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tigma and Psychosocial Adjustment in Out-of-School Youth: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concept Clarity

이화명*, 김영미**

경남정보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Hwa-Myung Lee(seahwamyung@hanmail.net)*, Yeoung-Mi Kim(okok2536@hanmail.net)**

요약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낙인이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사회적 낙인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산시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사회적 낙인은 자기개념 명확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낙인은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개념 명확성은 심리사회적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 낙인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사회적 낙인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봄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 방안을 모색하고, 자기개념 명확성을 높일 수 있는 상담적 개입을 촉구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중심어** : | 학교 밖 청소년 | 사회적 낙인 | 자기개념 명확성 | 심리사회적 적응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social stigma on psychosocial adjustment in out-of-school youth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concept cla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tigma and psychosocial adjustment.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out-of-school youth who resided in the city of Busan, on whom a survey was conducted.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ocial stigma was found to have exercised a negative influence on self-concept clarity. Second, social stigma was found to have exercised a negative influence on psychosocial adjustment. Third, self-concept clarity was found to have exercised a negative influence on psychosocial adjustment. Fourth, self-concept clarity was found to have had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tigma and psychosocial adjustment. This study is of significance in that it attempted to seek ways of improving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out-of-school youth and urged offering counseling intervention geared toward boosting self-concept clarity by analyz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concept cla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tigma and psychosocial adjustment.

■ **keyword** : | Out-of-School Youth | Social Stigma | Self-Concept Clarity | Psychosocial Adjustment |

1.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기부터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의 비행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청소년의 범죄, 비행, 학교 부적응, 가출, 자살 등의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여성가족부(2015)[1]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2명 중 1명은 고등학교(50.3%) 때 학교를 그만 두었고, 특히 고등학교 1학년(32.6%)때 가장 많이 그만 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절반 이상은 학교를 그만 둔 것을 후회하고 있고, 비행 청소년 집단(70.2%)이 일반 청소년 집단(47.6%)에 비해 학교를 그만 둔 것에 대해 더 많이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은 사회적 편견 43%, 진로 미설정 28.8%, 부모와 갈등 26.3% 등으로 인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회로부터 비행 청소년이라는 낙인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자아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로, 청소년들은 주변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낙인이 형성될 수 있다. 낙인의 형성은 자신에 대한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평가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인식하고 자신의 자아에 반영하게 된다. 즉 스스로를 문제아 혹은 비행 청소년으로 평가하거나,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문제아나 비행 청소년으로 평가하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낙인이 형성되게 된다.

김소현(2010)[2]은 청소년의 낙인과 관련하여 자신을 모범생이라고 인지한다면 스스로 일관된 모범적 행동을 유지하게 되고, 반대로 자신을 문제아라고 지각할 경우 실제로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 외의 선행연구들에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의해 낙인을 받은 사람일수록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3][4]. 청소년들은 낙인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혼란과 불안, 갈등, 가정 내에서의 정서적 친밀감의 상실, 그리고 심리적 부적응을

느끼게 된다. 이는 단순히 청소년 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상실되고,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와 여러 심리사회적 문제를 겪게 된다 [5].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부정적 낙인을 부여하거나 주위사람들로부터 부정적 낙인을 부여받음으로써 이에 부합하는 공통성을 지닌 집단으로 소속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성식(2007)[6]에 의하면, 비행에 있어서 주위사람들에 의한 낙인이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한다. 따라서 주위사람에 의한 부정적 낙인은 아직 자아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낙인이 청소년의 자아의식에 내재화되면 열등감이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겪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 개념 명확성의 정도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응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자기개념 명확성은 자존감, 긍정 정서의 경험, 외향성 등과 정적 상관관이 있고, 우울, 불안, 부정 정서의 경험 등과는 부적 상관관을 나타냄으로서 자기 개념 명확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7]. 자기개념 명확성은 자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을 말한다[8].

이러한 자기개념 명확성의 저하는 심리적 부적응과 병리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혀졌다[9]. 일반적으로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하여 부정적인 정보에 몰입되는 경향이 적고, 자아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정도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또한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을 경우 자존감과 주관적 안녕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11][12]. 따라서 자기개념 명확성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미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낙인을 받고 있을 때, 자기개념 명확성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어 보호·완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이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사회적 낙인과 심리사회적응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다 사회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 밖 청소년과 낙인

1.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학교 밖 청소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학교 밖 청소년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학교 중도탈락 청소년, 자퇴생, 학업 중단 청소년, 중퇴 청소년, 비(非)학생 청소년, 탈학교 청소년 등이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부적응적 관점에서 이해하던 1980년대 후반에는 중도탈락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다. 이때의 탈락, 퇴학 등은 뭔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밀려난 의미였다. ‘학교중퇴’라는 용어도 일반적으로 학교를 다니다가 그 정규과정을 다 이수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낙오하거나 탈락하는 경우라 정의하였다.

그러다가 학교붕괴 등으로 표현되는 학교제도의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1990년대 말부터는 좀 더 가치중립적인 ‘학업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¹⁾ 이 때부터 학업중단을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사망, 전학 이외의 개인, 가정, 학교, 사회적 이유로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는 개념으로 보았다. 그러나 학교를 떠난 것이 학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며, 중단이라는 용어 역시 여전히 부적응의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2004)[13]에서는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여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뿐 아니라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난 모든 청

소년(근로 청소년, 무직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밖에도 학교를 떠나는 것에 대해 청소년 본인의 주체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탈학교 청소년이라는 개념도 사용되고 있으나, ‘탈(脫)’이라는 어감이 일탈 내지는 정상케도의 이탈이라는 의미로 비춰지는 소지가 있다[14].

이러한 용어 정의에 대한 부정적 문제 제기로 인해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이 가지는 긍정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청소년상담원(2008)[15]에서는 학업중단을 ‘중퇴 혹은 중도탈락’과 유사한 뜻으로 설명하고, 정규학교를 다니다가 비행, 질병, 가사, 기타의 이유로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학업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학교를 그만 두었지만 공부를 포기한 것이 아니며, 수동적인 입장에 국한하지 않고 능동적이며, 자발적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학교중단 청소년’이라고 표현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16]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7년을 기점으로 전체적인 학업중단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2%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12학년도 학업중단 학생은 약 6.8만 명이며, 같은 기간 약 2.7만 명이 학업에 복귀(대비 학업중단율 1.1%)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학업복귀율(18% 수준)이 초(70~80%)·중학교(50% 수준)의 복귀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6]. 이를 볼 때, 학업중단은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발생하여, 학령별로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때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소년기의 자아 형성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주변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비공식 낙인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자신에 대한 주위 사람들부터 평가를 자신의 자아에 반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스스로를 문제아 혹은 비행 청소년으로 평가하거나,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문제아나 비행 청소년으로 평가하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비공식 낙인이 형성될 수 있다[2]. 예를 들면, 자신을 모범생이라고 인지한다면 스스로 일관된 모범적 행동을 할 것이며, 반대로

1) 2003년에 ‘청소년 기본법’에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해밀”이 시범운영 되다가 2006년에 들어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청소년안정망 (CYS-NET)’으로 그 기능이 통합되었다.

자신을 문제아라고 지각할 경우 실제로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1.2 학교 밖 청소년과 낙인

낙인은 내재화 되는 과정에 따라 주위사람들의 낙인과 자기낙인의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청소년을 둘러싼 공식적 체계와 비공식적 인물들 즉 부모, 교사, 친구 등 주위 사람들로부터 일차적 낙인을 주위사람들의 낙인이라고 할 수 있다. Jenson(1972)[4]는 주위 사람들에 의해 낙인을 받은 사람일수록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에 반해 이러한 주위사람들의 낙인을 내재화하고 자아의식의 한 부분으로 고착시켜가는 것을 자기낙인이라 할 수 있다. 자기낙인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내면화하고 나아가 스스로를 부정하거나 열등하다고 지각하게 만든다[3].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중단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성장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러한 기회의 부족은 개인의 의미 있는 자아 형성을 어렵게 하며, 나아가 낮은 자아개념과 사회적 기술 결여는 삶의 질의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17].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이 경험하는 발달 과정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문제아 또는 실패자라는 낙인과 소외감, 좌절감 등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18]. 학교나 사회의 부정적 시선은 이들의 자아존중감과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19].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아개념을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다양한 좌절을 경험하면서 건강한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을 획득하지 못한다. 이러한 자아정체감의 미확립과 낮은 자아존중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개인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20-26].

Fromm(2000)[27]은 남과 다르다는 것이 강한 공포를 불러일으킨다고 하였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세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무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분리는 불안의 원천이 되며, 인간은 이러한 분리 상태를 극복하고 고독이라는 감옥을 벗어나고자 하는 절실한 욕구를 느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남들과 다르다는 편견과 차가운 시선, 가족과의 갈등 등 학교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28][29]. 이들은 자신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불안을 느끼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한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28][30]. 특히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중단 시 계획했던 일들을 잘 이어가지 못했고, 이로 인해 더욱 큰 좌절감과 소외감을 경험하게 되었다[31].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일반 학생들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것 자체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은 우울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퇴 경험 학생은 일반 재학생보다 우울 경향이 1.7배 높으며[32], 학교 중퇴자의 53%는 우울증을 단독, 또는 불안장애와 동반하여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33]. 특히 학교 중퇴 후 초기에는 불안장애를 많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장애와 신체화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23].

2.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기의 적응은 가정, 학교, 사회적응과 건강유지, 경제문제, 인격적 적응으로 인성 및 인생관 확립 등의 과제 수행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규교육과정에서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 일반 청소년들의 적응보다 더 어려운 적응과제를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34].

일반적으로 심리사회적 적응이란 인간이 변화하는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 자구에 대해 개인의 특성과 환경과의 상호의존적 관계에 따른 여러 가지 형태를 말한다[35]. 즉, 잘 적응된 상태란 개인이 늘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자신의 요구와 바람을 적응적으로 충족하거나 조절하여 일상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심리적으로 좌절감과 불안감 없이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35-37]. 반면에 Cicchetti와 Toth(1991)[38]은 심리사회적 적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과의 부적절한 관계 상태를 부적응 및 정서적 행동장애로 보았다.

Achenbach(1991)[39]은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적응

을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그리고 사회적 역량의 세 차원으로 설명하였다. 내재화 문제는 우울, 불안, 위축, 신체증상, 사고력 문제, 주의집중 문제 등의 소극적이고 사회적으로 내재화되고 과잉 통제된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외현화 문제는 비행행동, 공격행동 등과 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싸움을 하는 등의 외현화되고 과소 통제된 행동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역량은 사회행동, 학습수행, 사회활동으로 구분하여 개념화하였다.

심리사회적 적응에서 심리 적응은 Kazdin(1993)[40]이 말하는 정신건강의 유능성 모형과 거의 일치한다. 그에 의하면, 심리적으로 잘 적응한 사람이란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사회적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한 만족감이 높고,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응은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사회화 욕구를 반영하며, 사회 규범, 역할 인식, 윤리적 가치 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사회적 활동의 회복과 활성화를 의미하며, 어떠한 스트레스 하에서도 자신의 다양한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매일의 일을 관리하는 능력에 대한 개념을 말한다[41].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심리적 적응은 개인 내의 정신 건강과 유사한 개념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적응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개인이 욕구를 만족시키고 조절해가는 사회적 유능성에 관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사회적 적응을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생활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사회적 안녕감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3. 자기개념 명확성

자기개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념의 총합으로서 개인에 따라 크게 다르다. 자기개념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자기개념을 단일한 실제(entity)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점차 자기개념의 다차원성과 인지적 도식으로서의 관점이 강조되면서, 최근에는 내용적 요소와 구조적 요소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42]. 내용적 측면에서는 자기 가치감, 자존감, 자기 효능감, 자기긍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구조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된 분화된 체계로 보고 자기개념의 조

직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43].

자기개념 명확성은 자기개념이 얼마나 일관되며 명확하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뜻한다. 즉, 자기개념 명확성은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갖고 있는 개념의 내적 일관성과 시간적 안정성, 그리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를 의미한다[8].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혼란스러울 때는 자기개념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44].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이 낮은 경우 외부 단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향을 받기 쉬우며, 이에 따라 부정적 피드백을 위협이라 지각하고 쉽게 분노나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7]. 따라서 자기개념명확성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자기개념에서 명백하게 일치되지 않는 특징들을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은 청소년기 동안 습득되는데, 14-15세경에는 불일치되는 특징들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17-18세가 되면 이러한 불일치들을 응집된 기술로 통합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45]. 청소년들 중에도 특히 비행청소년들은 불안정한 자기개념으로 인해 자기와 연관된 단서들에 대해 쉽게 영향을 받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고 한다[7].

Stucke와 Sporer(2002)[46]는 낮은 자기개념 명확성이 공격성 및 비행행동을 예견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낮은 자기개념 명확성 집단은 신체적 공격성, 적대감, 분노감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47]. 비행 청소년의 자기개념 명확성은 비행행동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8].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유영(2014)[49]의 연구에서는 자기개념이 명확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자기 불확실성을 더 많이 느끼고, 이러한 요인은 비행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개념 명확성은 그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1.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사회적 낙인이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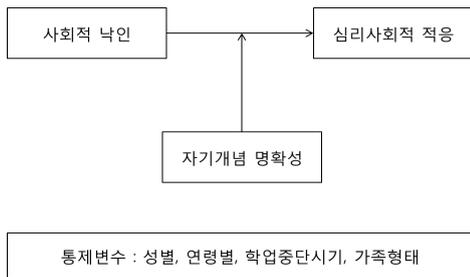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1.2 연구가설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사회적 낙인은 자기개념 명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사회적 낙인은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자기개념 명확성은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사회적 낙인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시에 거주하면서 정규교육과정을 중단한 청소년으로 중·고등학교의 자퇴, 퇴학, 유예, 면제자 중 청소년 관련 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쉼터 등)

또는 검정고시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 동안 관계자들의 협조를 얻어 자기평가 기입법을 통해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180부를 배부하여 167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0부를 제외하고 157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백분율
성 별	남	86	54.8
	여	71	45.2
연 령	16세	42	26.8
	17세	58	36.9
	18세	42	26.8
	19세	15	9.6
학업중단 시기	중학교 1학년	47	29.9
	중학교 2학년	37	23.6
	중학교 3학년	30	19.1
	고등학교 1학년	43	27.4
학업중단 이유	친구와의 갈등	23	14.6
	무단결석, 등교거부	35	22.3
	경제적 문제	5	3.2
	학교폭력	6	3.8
	학교생활 부적응	25	15.9
	학업흥미/학업동기부족	57	36.3
학업중단 시 도움 요청 대상	기타	6	3.8
	혼자 결정	77	49.0
	부모	20	12.7
	담임선생님, 교과 선생님	15	9.6
가족형태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45	28.7
	양부모가정	41	26.1
	한부모가정	55	35.0
	재혼가정	34	21.7
전 체	조손가정	27	17.2
	전 체	157	100.0

성별로는 남학생이 54.8%로 여학생 45.2%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17세가 36.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6세와 18세 26.8%, 19세 9.6%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시기별로는 중학교 1학년이 29.9%

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27.4%, 중학교 2학년 23.6%, 중학교 3학년 19.1% 순이었다. 학업중단 이유별로는 학업흥미/학업동기 부족이 36.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무단결석, 등교거부 22.3%, 학교생활 부적응 15.9%, 친구와의 갈등 14.6%, 학교폭력 3.8%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시 도움 요청 대상별로는 혼자 결정이 48.0%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 28.7%, 부모 12.7%, 담임선생님, 교과선생님 9.6% 순이었다. 가족형태별로는 한부모가정이 35.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양부모가정 26.1%, 재혼가정 21.7%, 조손가정 17.2% 순으로 나타났다.

3. 측정도구

3.1 사회적 낙인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 낙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Komiya, Good와 Sherrod(2000)[50]가 개발하고, 이민지, 손은정(2007)[51]이 한국어로 번안한 사회적 낙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낙인이 높음을 의미한다.

3.2 자기개념 명확성

자기개념 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Campbell 외(1996)[7]가 개발한 것을 김대익(1998)[52]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3.3 심리사회적 적응

심리사회적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K-YSR) 중 오승환(2001)[53]의 수정·보완한 설문 문항을 토대로 위축과 우울/불안, 비행, 공격성 항목을 선별하여 5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

리사회적 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이 Cronbach α 가 사회적 낙인 0.97, 자기개념 명확성 0.82, 심리사회적 적응 0.95로, 모두 0.8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2. 측정도구의 신뢰도

구 분	문항수	Cronbach's α
사회적 낙인	8	0.97
자기개념 명확성	12	0.82
심리사회적 적응	50	0.95

3.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그리고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Correlation(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및 낙인과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Hierarchical Regression(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변수간의 상관관계

독립변수인 사회적 낙인과 조절변수인 자기개념 명확성, 그리고 종속변수인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변수간의 상관관계

구 분	사회적 낙인	자기개념 명확성	심리사회적 적응
사회적 낙인	1.000		
자기개념 명확성	-0.640***	1.000	
심리사회적 적응	-0.514***	0.444***	1.000
Mean(SD)	3.48(1.26)	3.02(0.80)	3.60(0.71)

*** $p < .001$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낙인은 자기개념 명확성($r=-.640, p<.001$) 및 심리사회적 적응($r=-.514,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개념 명확성은 심리사회적 적응($r=.444,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회적 낙인이 높을수록 자기개념 명확성과 심리사회적 적응이 낮으며,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적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 사회적 낙인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2.1 사회적 낙인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낙인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기개념 명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사회적 낙인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모델 I			모델 II			
	b	β	t	b	β	t	
일반적 특성	성 별	-0.473	-0.295	-4.812***	0.021	0.013	0.257
	연 령	-0.006	-0.007	-0.089	-0.015	-0.018	-0.325
	학업중단 시기	0.271	0.402	5.069***	0.076	0.112	1.777
	가족형태	0.440	0.243	3.734***	0.146	0.081	1.630
사회적 낙인				-0.477	-0.751	-11.599***	
constant	2,511	17,034***		4,477	22,305***		
R ²	0.471			0.720			
ΔR^2	0.471			0.249			
F	33.807**			77.711***			
ΔF	33.807***			134.532***			

*** p<.001

첫 번째 회귀모형은 약 47.1%(R²=.471)의 설명력을 지니며, 자기개념 명확성에는 성별($\beta=-.295,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고, 학업중단 시기($\beta=.402, p<.001$)와 가족형태($\beta=.243,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여학생일수록, 학업중단시기가 늦을수록, 양부모가정 학생일수록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모델에 이어 두 번째 수행된 회귀모델 II에

서는 사회적 낙인의 독립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것으로 모델의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F=77.711, p<.001), 설명력은 72.0%이었고, 이는 첫 번째 회귀분석 모델보다 설명력이 24.9% 증가하였다($\Delta R^2=.249$). 자기개념 명확성에는 사회적 낙인($\beta=-.751,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회적 낙인이 높을수록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볼 때,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은 자기개념 명확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 사회적 낙인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낙인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사회적 낙인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모델 I			모델 II			
	b	β	t	b	β	t	
일반적 특성	성 별	-0.623	-0.441	-8.035***	-0.423	-0.299	-4.992***
	연 령	0.053	0.070	1.051	0.049	0.065	1.038
	학업중단 시기	0.155	0.260	3.668***	0.076	0.127	1.751
특 성	가족형태	0.490	0.306	5.274***	0.371	0.232	4.079***
사회적 낙인				-0.193	-0.345	-4.628***	
constant	3,317	28,494***		4,113	20,173***		
R ²	0.578			0.630			
ΔR^2	0.578			0.052			
F	51.997***			51.470***			
ΔF	51.997***			21.419***			

*** p<.001

첫 번째 회귀모형은 약 57.8%(R²=.578)의 설명력을 지니며, 심리사회적 적응에는 성별($\beta=-.441,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고, 학업중단 시기($\beta=.260, p<.001$)와 가족형태($\beta=.306,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여학생일수록, 학업중단시기가 늦을수록, 양부모가정 학생일수록 심리사회적 적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모델에 이어 두 번째 수행된 회귀모델 II에 서는 사회적 낙인의 독립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것

으로 모델의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F=51.470, p<.001$), 설명력은 63.0%이었고, 이는 첫 번째 회귀분석 모델보다 설명력이 5.2% 증가하였다($\Delta R^2=.052$). 심리사회적 적응에는 성별($\beta=-.299, p<.001$)과 사회적 낙인($\beta=-.345,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고, 가족형태($\beta=.232,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남학생일수록, 양부모가정 학생이 아닐수록, 사회적 낙인이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적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볼 때,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은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은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3 자기개념 명확성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기개념 명확성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자기개념 명확성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모델 II		
		b	β	t
일반적 특성	성 별	-0.517	-0.366	-6.457***
	연 령	0.054	0.072	1.119
	학업중단시기	0.094	0.158	2.141*
	가족 형태	0.392	0.245	4.191***
자기개념 명확성		0.224	0.254	3.644***
constant				14.416***
R ²		0.612		
ΔR^2		0.034		
F		47.615***		
ΔF		13.281***		

* p<.05, *** p<.001

첫 번째 모델[표 5]에 이어 두 번째 수행된 회귀모델 II에서는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것으로 모델의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F=47.615, p<.001$), 설명력은 61.2%이었고, 이는 첫 번째 회귀분석 모델보다 설명력이 3.4% 증가하였다($\Delta R^2=.034$). 심리사회적 적응에는 성별($\beta=-.366,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고, 학업 중단시기($\beta=.158, p<.05$)와 가족형태($\beta=.245, p<.001$),

그리고 자기개념 명확성($\beta=.254,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여학생일수록, 양부모가정 학생일수록,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볼 때,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개념 명확성은 심리사회적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사회적 낙인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

사회적 낙인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모델 I에서는 일반적 특성 변수를 투입하였고, 모델 II에서는 사회적 낙인 변수를, 모델 III에서는 자기개념 명확성을, 모델 IV에서는 사회적 낙인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상호작용항 변수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사회적 낙인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

구 분		모델 III			모델 IV		
		b	β	t	b	β	t
일반적 특성	성 별	-0.424	-0.300	-5.000***	-0.382	-0.270	-4.406***
	연 령	0.050	0.066	1.057	0.063	0.084	1.341
	학업중단시기	0.071	0.119	1.621	0.052	0.087	1.167
	가족형태	0.362	0.226	3.938***	0.362	0.226	3.974***
사회적 낙인(A)		-0.163	-0.291	-2.836**	-0.226	-0.403	-3.483**
자기개념 명확성(B)		0.063	0.072	0.765	0.048	0.055	0.586
A*B					0.086	0.125	2.020*
constant		3.830		9.051***	4.160		9.252***
R ²		0.632			0.641		
ΔR^2		0.001			0.010		
F		42.871***			38.084***		
ΔF		0.585***			4.082*		

* p<.05, ** p<.01, *** p<.001

첫 번째 모델과 두 번째 수행된 회귀모델 II[표 5]에 이어 세 번째 수행된 회귀분석은 [표 7]의 모델 III에서는 자기개념 명확성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것으로

모델의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F=42.871$, $p<.001$), 설명력은 63.2%이었고, 이는 두 번째 회귀분석 모델보다 설명력이 0.1% 증가하였다($\Delta R^2=.001$). 심리사회적 적응에는 성별($\beta=-.300$, $p<.001$)과 사회적 낙인($\beta=-.291$,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고, 가족형태($\beta=.226$,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남학생일수록, 양부모가정 학생이 아닐수록, 사회적 낙인이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적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 번째 수행된 회귀분석은 [표 7]의 모델 IV에서는 자기개념 명확성 조절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것으로 모델의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F=38.084$, $p<.001$), 설명력은 64.1%이었고, 이는 세 번째 회귀분석 모델보다 설명력이 1.0% 증가하였다($\Delta R^2=.010$). 심리사회적 적응에는 성별($\beta=-.270$, $p<.001$)과 사회적 낙인($\beta=-.403$,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고, 가족형태($\beta=.226$, $p<.001$)와 사회적 낙인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상호작용항($\beta=.125$,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결과를 볼 때,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4는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문제아 또는 비행청소년이라는 주위환경으로부터의 낙인은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사회적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낙인이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사회적 낙인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낙인은 자기개념 명확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회적 낙인이 높을수록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낙인찍힘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 속

한 개인의 경우 자아정체감에 손상이 오게 된다고 보고한 조수민(2016)[54]의 연구결과와 맥락이 유사하다. 본 연구결과를 볼 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적 열등감으로 자리 잡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거짓된 모습으로 방어하게 만듦으로써 자기개념 명확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사회적 낙인은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낙인 정도가 낮을수록 사회적응 정도가 높다고 보고한 최인실(2009)[5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장애대학생의 지각된 낙인과 우울은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임이 드러난 정원철, 김진영(2015)[5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사회적 상황에서 자아에 대한 위협을 느낌으로써 심리사회적 적응도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해서는 그들이 지각한 사회적 낙인을 줄여줄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낙인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바라보고 있는 부정적인 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자기개념 명확성은 심리사회적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57][58]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자기개념 명확성과 사회불안과 부적 상관관계를 검증한 기존의 연구[59][60]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이나 자기에 대한 신념이 조직화 되는 방식인 자기개념의 명확한 구조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향상시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치료적 개입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고 판단에 대한 인식을 수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긍정적인 관점을 증진하고, 자신을 위로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넷째, 사회적 낙인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수준에 따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적응 정도가 다르며, 낮은 자기개념 명확성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적응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기개념 명확성이 정서균형 수준을 예측한다는 Bigler et al.(2001)[57]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자기개념 명확성은 개인이 일상에서 느끼는 정서나 만족감보다는 타인의 평가 상황에서 더 안경감을 느끼게 한다는 문경하(2007)[61]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기와 관련된 부정적 정보에 덜 몰입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위협을 덜 느끼므로 인해 심리사회적 적응도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낙인이 지각하여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자기개념을 높여주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보다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적응 향상을 위해서는 자기개념 명확성을 다루는 상담 개입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담적 개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자기개념에 대한 구조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 낙인과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을 고려한 상담적 개입의 중요성을 촉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측정방법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상 결과가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이외에도 행동관찰, 심층면접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기개념 명확성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와 일반 청소년들과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통계자료*, 2015.

[2] 김소현, “다층성장모형표(HLM)을 통한 청소년의 비공식적 낙인 변화추정,”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제7권, pp.7-31, 2010.

[3] 이순래, 박현기, “비행소년의 발전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학*, 제1권, 제2호, pp.149-190, 2007.

[4] G. F. Jensen, “Delinquency and adolescent self-conceptions: A study of the personal relevance of infraction,” *Social Problems*, Vol.20, pp.84-103, 1972.

[5] 김영희,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6] 이성식, “청소년비행과 비공식낙인의 영향: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형사정책연구*, 제71권, pp.1105-1127, 2007.

[7] J. D. Campbell, P. D. Trapnell, S. J. Heine, M. Katz, L. F. Lavellee, and D. R. Lehman,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0, pp.141-156, 1996.

[8] J. D. Campbell, “Self-esteem and clarity of the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9, pp.538-549, 1990.

[9] M. A. Gara, R. L. Woolfolk, B. D. Cohen, R. B. Goldston, L. A. Allen, and J. Novalany, “Perception of self and other in majo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102, No.1, pp.93-100, 1993.

[10] J. D. Campbell, S. Assanand, and A. Paula, “The Structure of the self-concept and its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Vol.71, No.1, pp.115-140, 2003.

[11] 이기재, 최해림, “분리-개별화, 자기개념 명확성 및 비합리적 신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

- 향,” 인간이해, 제30권, 제2호, pp.81-99, 2009
- [12] 정현희, *상담자의 완벽성향과 주관적 안녕감,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13] 한국청소년상담원, *학업중단 청소년 실태조사*, 2004.
- [14] 최연수, *학교 밖 청소년의 도시형 대안학교 적응 과정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15] 한국청소년상담원, *위기청소년 사회진출지원을 위한 두드림존 특성화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2008.
- [1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업중단 청소년 실태조사*, 2014.
- [17] 이용교, 김영자, 김형수, 남국희, 박영석, 이형하, 임성욱, 정광익, 조준, *청소년 문제와 청소년 복지*, 서울: 인간과 복지, 2002.
- [18] 홍봉선, 남미애, “학교폭력문제해결을 위한 학교 차원의 회복적 사범의 적용,” *형사정책*, 제26권, 제2호, pp.45-79, 2014.
- [19] 조규필, “학업중단 청소년 대책을 위한 정책제안,” *학교 밖 청소년 문제 대책 마련 토론회 자료집: 학교 밖 청소년 문제 대책 마련 토론회*, pp.74-82, 2013.
- [20] 김문희, “학업중단 예방 및 Wee센터의 역할,”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pp.95-100, 2013.
- [21] 김범구, 조아미,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 pp.5-31, 2013.
- [22] 이자영, 강석영, 김한주, 이유영, 양은주,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중단의 위험 및 보호요인 탐색: 개념도 연구법의 활용,” *청소년상담연구*, 제18권, 제2호, pp.225-241, 2010.
- [23] 한상철, 김혜원, 설인자, 임영식, 조아미, *청소년 심리학*, 교육과학사, 2004.
- [24] 배영태, “학교 중도탈락의 선행요인과 판별,” *청소년상담연구*, 제11권, 제2호, pp.323-35, 2003.
- [25] 이숙영, 남상인, 이재규,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 상담정책 개발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997.
- [26] R. W. Rumberger, “High school dropouts: A review of issues and evidenc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57, No.2, pp.101-121, 1987.
- [27] A. Fomm, *지경자 역, 자유로부터의 도피*, 홍신문화사, 2000.
- [28] 서정아, 권해수, 정찬석, *학교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6.
- [2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
- [30] 남미애, “학교밖 청소년의 욕구와 사회적 지원방안,” *사회과학논문집*, 제24권, 제4호, pp.147-196, 2006.
- [31] 금명자, 권해수, 이자영, 이수립, 김상수, “학교밖 청소년 종합지원체제 구축 운영연구,” *청소년상담연구*, pp.2-221, 2004.
- [32] 황정숙, *중퇴경험생과 일반재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성격특성 비교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33] G. A. Bernstein and C. M. Borchardt, “Anxiety disorders of childhood and adolescence: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ol.30, pp.519-532, 1991.
- [34] 김지현, *초등학교 남녀 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자아효능감 및 학교생활 적응 차이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35] 김신희, *방임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36] 이혜련, “심리상담지원: 치유를 위한 심리치료,” *발간자료*, 제1호, pp.65-70, 2004.
- [37] 장연정,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38] D. Cicchetti and S. L. Toth, *Disorders and*

- Dysfunctions of the Sel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1.
- [39] G. Achenbach, *Die Eröffnung, Philosophische Praxis: Vorträge U, Aufsätze*. Köln: Verlag für Philosophie dinter, 1991.
- [40] A. Kazdin, "Adolescent mental health: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s," *American Psychologist*, Vol.48, pp.127-141, 1993.
- [41] R. S. Lazarus and S. Folkman,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 1976.
- [42] J. Altrocchi, "Individual differences in pluralism in self-structure," In J. Rowan & M. Cooper (Eds.), *The plural self: Multiplicity in everyday life*(pp.168-182), London: Sage, 1999.
- [43] 송보라, 이기학, "자기개념 복잡성과 심리적 적응관계에서의 인지적 유연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3권, 제3호, pp.73-88, 2009.
- [44] 유성은,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분노 수준의 관계: 자기개념명확성의 매개효과와 가족응집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45] S. Harter and A. Monsour, "Developmental analysis of conflict caused by opposing attributes in the adolescent self-portrait,"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8, No.2, pp.251-260, 1992.
- [46] T. S. Stucke and S. L. Sporer, "When a grandiose self-image is threatened: Narcissism and self-concept clarity as predictors of negative emotions and aggression following ego-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Vol.70, pp.509-532, 2002.
- [47] 안연옥, *자기애와 공격성 간의 관계: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48] 홍정순, *자기개념이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49] 김유영, *고등학생의 자기개념 명확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와 대인관계의 매개효과*,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50] N. Komiya, G. E. Good, and N. B. Sherrod, "Emotional openness as a predictor of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seeking psychologic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7, No.1, pp.138-143, 2002.
- [51] 이민지, 손은정, "낙인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간의 관계: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9권, 제4호, pp.949-966, 2007.
- [52] 김대익, *한국인의 자아개념 명료성에 대한 연구: 성격, 자의식, 행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53] 오승환,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가족기능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 연구: 양친가족, 편부모가족, 편모가족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지*, 제12권, pp.109-133, 2001.
- [54] 조수민, *가정의보호아동의 낙인감, 자아존중감, 학업성취의 양방향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55] 최인실, *정신장애인이 지각하는 낙인과 사회적 지지가 사회응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56] 정원철, 김진영, "장애대학생의 지각된 낙인과 우울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8호, pp.345-355, 2015.
- [57] M. Bigler, G. J. Neimeyer, and E. Brown, "The divided self revisited: Effects of self-concept clarity and self-concept differentiation on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1.20, pp.396-415, 2001.
- [58] J. D. Campbell, B. Chew, and L. S. Scratchley, "Cognitive and emotional reactions to daily events: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complexity," *Journal of Personality*, Vol.59,

pp.473-505, 1991.

- [59] 옥주희, 부정적 자기개념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자기초점적주의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60] L. Stopa, M. J. Brown, M. A. Luke, and C. R. Hirsch, "Constructing a self: The role of self-structure and self-certainty in social anxiety,"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Vol.48, pp.955-965, 2010.
- [61] 문경하, 자기개념명확성과 자의식이 주관적 안녕감 및 평가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저 자 소 개

이 화 명(Hwa-Myung Lee)

정회원



- 현재 : 경남정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김 영 미(Yeoung-Mi Kim)

정회원



- 2007년 8월 : 동아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15년 8월 : 신라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 2016년 2월 : 동아대학교 대학원 영유아교육학 박사과정 수료

▪ 2017년 6월 : 부산여자대학교 아동복지보육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 아동, 청소년심리상담, 영유아교육, 가족상담복지, 교육복지